

## ‘給’字 사동문의 기원과 의미\*

박 향 린\*\*

## &lt;目次&gt;

I. 서론	1. 사동주의 의미특성
II. ‘給’字 사동문의 기원	2. 피사동주의 의미특성
III. ‘給’字 사동문의 의미	IV. 결론

## I. 서론

사동이란 사동주가 피사동주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어떤 상황에 처하게 하는 태의 일종으로, 언어 유형학에서는 사동의 형태를 크게 어휘적 사동(lexical causative), 형태적 사동(morphological causative), 통사적 사동(syntactic causative)으로 나눈다.<sup>1)</sup> 그리고 이런 형태의 차이는 사동 의미의 직접성(directness)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어휘적 사동에 가까울수록 직접 사동(direct causative)을 표현하고, 통사적 사동에 가까울수록 간접 사동(indirect causative)을 표현한다. 직접 사동이란 사동주가 피사동주에게 직접적인 작용을 하여 어떤 상태에 처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고, 간접 사동은 사동주가 지시, 명령, 권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 1) 어휘적 사동은 동사 자체에 사동 의미가 내재되어 있고, 형태적 사동은 동사에 접사 등의 형태적인 수단을 부가하여 사동을 표현한다. 통사적 사동은 원인과 결과 사건이 각각 두 개의 독립된 동사로 출현한다. (Shibatani(1973, 1976), Comrie(1989) 참조). 중국어는 고립어로서 형태의 변화가 거의 없으므로, 주로 어휘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에 의해 사동법이 실현된다.

피사동주의 행위나 상태를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 중국어에서 ‘給’은 ‘使, 叫, 讓’등과 마찬가지로 ‘NP1+給+NP2+VP’의 겹어 구조를 이루며, 통사적 사동을 구성한다. 따라서 언어 유형학적 관점에서 볼 때 ‘給’字 사동문은 간접 사동을 표현하는 것이 전형적이다. 하지만, 어떤 ‘給’字 사동문은 다소 특수한 경우로 보인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1) 媽媽給孩子吃了一頓飯。  
(엄마가 아기에게 밥을 먹였다.)  
(2) 媽媽給孩子穿衣服。  
(엄마가 아기에게 옷을 입힌다.)

박미정(2001)은 위와 같은 ‘給’字 구문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통사적 사동에 속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직접 사동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위의 예들은 모두 엄마가 아기에게 직접 손을 이용해 아기의 입에 밥을 밀어 넣거나, 옷을 입히는 등 직접적인 행위를 표현한다. 따라서 사동주가 피사동행위에 참여하며, 사동주와 피사동주 사이에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있고, 동일한 장소에 피사동주와 함께 있으면서 할 수 있는 동작이나 행위이다. 이처럼 사동주의 피사동 행위참여 여부, 사동·피사동행위의 분리가능성 여부, 피사동행위의 실현함의 여부 등을 통해 ‘給’字 구문이 직접 사동을 나타냄을 밝혔다.

그러나, 전기정(2006)은 예(1)의 ‘給’ 뒤에 오는 NP2(孩子)은 NP3(一頓飯)의 접수자인 동시에 VP(吃)의 행위자라고 보아, 이 문장은 수여와 사동의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고 보았다. 예(2)는 옷을 입히는 동작(穿)이 NP2(孩子)가 아니라, NP1(媽媽)에 의해 행해지므로, 사동의 의미를 나타내기 보다는 수혜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즉 VP의 동작주체는 일반적인 사동문과 달리 NP2가 아니라, NP1이므로 직접 사동이 아니라고 보았다. 더구나 현대중국어에서 ‘給’이외에 어떤 사동표지도 직접 사동을 나타내지

않는데, 유독 ‘給’만 직접 사동문을 구성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견해의 차이는 바로 ‘給’字 사동문의 특수성을 드러낸다. 그럼 여기서 위의 두 견해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보자. 먼저 언어 유형론에서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을 구분 짓는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는 피사동주의 행위 참여여부, 즉 VP의 동작주체이다. 직접 사동에서는 사동주(NP1)가 직접적인 행위를 하고, 피사동주(NP2)는 행위를 입는 객체이므로, 동사술어(VP)는 일반적으로 행위동사가 아닌 상태 동사로 구성된다. 하지만, 예(1)에서 ‘媽媽’는 직접 밥을 먹는 행위를 하지 않고, 실제로 밥을 먹는 동작은 ‘孩子’에 의해 이루어진다. 단지 엄마는 보조행위를 통해 아이가 밥을 먹는 행위를 도와줄 뿐이다. 이처럼 아기가 밥을 먹는 행위와 엄마가 밥을 먹이는 행위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박미정의 견해처럼 사동주의 참여만을 의미하는 직접 사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전기정의 견해는 예(1)을 수여를 볼 것인지, 사동으로 볼 것인지 대한 판단기준이 없고, 예(2)는 전형적인 수혜용법-예를 들어 ‘他給我送來了小米和紅棗’에서처럼 ‘我’가 단순히 수혜자로 기능하는 것과는 여전히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해, 예(1~2)에서 ‘吃, 穿’의 행위는 결국 피사동주(NP2)의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피사동주가 일정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처럼 ‘給’字 사동문은 직접 사동과 비슷한 점이 있지만, 완전히 직접 사동으로 볼 수 없고, 또한 간접 사동으로도 볼 수 없으며,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의 연속체(continium)사이의 어느 지점에 존재한다. 이처럼 같은 형태의 사동문이라도 사동성의 정도에 세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sup>2)</sup> 그리고 이런 ‘給’字 사동문의 의미적 특수성은 그 통시적 변천과 관련이 있다. 더욱이 현대 중국어에서 ‘給’은 ‘주다’의 의미의 동사용법 이외에, 수혜,

2) Shibatani(2002)은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 사이에 sociative causation을 설정하여 direct causative-joint action-assitive-supervision-indirect라는 의미적 연속체를 제시하였다. 이익섭·임홍빈(1983:208~212) 역시 한국어의 사동행위의 의미를 사동주가 피사동주에 작용하는 방식과 피사동주가 피사동 사건에 관련하는 방식의 차이를 통해 네 가지로 구별하였다.

사동, 處置 및 피동을 표현하는 등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가진 어법 표지사로 기능한다.(朱德熙 1983, 石毓智 2004, 蔣紹愚 2002, 張敏 2008 등). 하지만, 몇몇의 연구를 제외한 이전의 연구는 주로 공시적 측면에서 ‘給’의 용법을 나열하는 것에만 치우쳐 ‘給’字 사동문의 의미 분석을 위한 통시적 연구가 부족하였다.

본고는 ‘給’字 사동문의 기원과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명·청시대에 쓰이기 시작한 ‘給’字 구문의 유형분석을 통해 ‘給’字 사동문의 기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명·청시대 ‘給’字 사동문의 의미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의미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결론적으로 ‘給’字 사동문이 중국어 여러 다른 사동구조에서 가지는 특수한 위치를 드러내고자 한다.

## II. ‘給’字 사동문의 기원

중국어 ‘給’은 ‘供給(물건을 바치다)’의 의미에서 ‘주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발전하기까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렸다.<sup>3)</sup> 李炎(2005)의 연구에 따르면, ‘給’은 만당오대와 송·원·명을 거쳐 청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보편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는데, 명말청초의 작품인 《醒世姻緣傳》에서부터 ‘給’의 출현이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하여, 《紅樓夢》과 《兒女英雄傳》에 이르러서는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醒世姻緣傳》에 출현하는 ‘給’字 겹어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給’字 사동문의 기원을 유추해볼 수 있다.<sup>4)</sup> 다음은 《醒世姻緣傳》에 나오는 ‘給’의 겹어 구조를 크게 네

3) 志村良治(1995)는 어음의 각도에서 ‘給’은 ‘饋’에서 발전된 것으로 보았고, 張惠英(1989)은 ‘給’이 《敦煌變文集》이래 ‘乞(吃, 喫)’의 변형으로 보았다.

4) ‘給’字 뒤에 하나 혹은 두 개의 명사성 성분만 출현하는 경우, 혹은 ‘V+給’의 용법으로 쓰인 경우는 모두 ‘給’字 사동문과 관련이 적으므로, 여기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a) Ns+給+N`+N+V

- (3) 晁夫人摩弄着他，哄他吃飯，又給他果子吃。(《醒世姻緣傳·第36回》)  
(晁夫人이 그를 어루만지면서, 달래어 밥을 먹게 하고, 과일을 주어서 먹게 하였다.)
- (4) 晁夫人道：‘咱往後只是給他飯吃，你再休題了。(《醒世姻緣傳·第36回》)  
(晁夫人이 말하길, 나는 앞으로 그에게 밥만 주어먹게 할 것이니, 너는 다시는 말을 꺼내지 말아라.)

(b) Ns+連/把+N+給+N`+V

- (5) 咱過的窮日子，清灰冷灶的，連鐘凉水也沒給他們吃。(《醒世姻緣傳·第22回》)  
(우리가 겪었던 어려운 시절, 너무 가난해서, 냉수 한 사발조차 그에게 먹지 못하게 했다.)
- (6) 我把這皮襖給俺那驢穿，給俺那狗披着！(《醒世姻緣傳·第67回》)  
(나는 이 모피옷을 내 당나귀에게 입게 하고, 내 개에게 걸치게 하였다.)

(c) Ns+V+N+給+N`+V

- (7) 你沒本事掙件衣服給老婆穿，就不消攬下老婆！(《醒世姻緣傳·第87回》)  
(너는 능력도 없이 옷을 얻어 마누라에게 입히니, 마누라를 안을 필요가 없다.)
- (8) 怎麼拿著主人家的貴米，多多的做下粥，給不相幹的人吃？(《醒世姻緣傳·第55回》)  
(어떻게 주인의 귀한 쌀을 가지고 죽을 쑤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먹이느냐?)

## (d) Ns+給+N`+V+N

- (9) 打發婆子上馬了，給他擱上衣裳，跳上了鏡。(《醒世姻緣傳·第40回》)  
 (처를 보내 노새에 타게 하고, 옷을 동여매게 하여, 말등자에 오르게 하였다.)
- (10) 他要可惡不老實，呼頓板子，給他剝了衣裳。(《醒世姻緣傳·第88回》)  
 (그가 진실하지 못하니, 곤장을 때리고 옷을 벗겨라.)

위의 예문들은 각기 ‘給’字 뒤에 출현하는 동사의 의미상 목적어인 N의 위치에 근거하여 분류한 것이다. 먼저 (a)유형은 ‘給’字 이중 목적어 구문 뒤에 동사가 합쳐진 것이다. 예(3)을 보면, ‘果子’는 ‘給’(주다)의 직접 목적어가 되면서, 또한 의미상 ‘吃’의 목적어가 된다. (b)유형은 의미상 동사의 목적어를 ‘把’, ‘連’자로 ‘給’字 앞으로 옮긴 것이다. (c)유형은 ‘給’字 겸어문 앞에 ‘V+N’구조가 출현하여 동작의 방식이나 방법 등을 나타내면서 연동 구조를 형성한다. 여기서 뒷면 동사의 의미상 목적어는 ‘V+N’의 ‘N’으로 ‘給’字 구문 앞에 출현한다. 예(8)을 보면 주인의 쌀을 가지고 와서 죽을 쑤는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먹게 한다하는 것으로 ‘吃’의 목적어에 해당되는 ‘粥’이 앞면에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d)유형은 동사 뒷면에 목적어가 출현한다.

이를 통해 선후의 발전관계를 추론해보면, 우선 ‘我給他飯/吃’처럼 이중 목적어 구문 뒤에 동사가 합쳐진 (a)유형이 가장 먼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sup>5)</sup> 왜냐하면 사동을 표현하는 ‘給’은 ‘주다’의미를 나타내는 동사에서 발전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밥을 주는 행위가 먼저 있고나서, 밥을 먹는 행위가 뒤에 이어지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다. 여기서 주어(Ns)는 N을 N'에게 주는 행위를 통해, N'로 하여금 수혜와 사동의 의미를 동시에 지

5) 朱德熙(1983)는 일찍이 ‘給’字 구문을 몇 가지 형식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는데, 그 중 ‘給’字 사동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給’字 겸어 구조는 ‘給’字 이중목적어 구조의 뒤에 동사가 합쳐진 유형이라는 것을 밝혔다. 그러므로 (a)유형의 출현은 ‘給’의 사동표현의 기원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니게 한다. (b)유형은 (a)유형의 변형으로 동사의 목적어를 앞으로 옮긴 것이다. (c)유형은 뒤의 사동 행위의 발생을 목적으로 앞면에 사동주의 구체적인 동작의 방법을 묘사하였다. 이후에 사동주의 동작의 방식이나 방법이 생략되면서, ‘我給他吃飯’의 (d)유형의 구조가 발전되었을 것이다. 즉 ‘給’字 구문에서 수여 의미와 목적성 행위, 그리고 사동 의미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초기 ‘給’字 겹어구조에 쓰이는 동사는 대부분 ‘吃, 喝, 穿’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일찍이 Shibatani & Pardeshi (2002)는 사동문을 구성하는 이런 동사를 흡수(ingestive)동사라고 명명하였다. 예를 들면, 보다(seeing), 알다(knowing), 배우다(learning)등과 같이 지식의 흡수를 나타내는 동사나, 먹고 마시는 동사, 혹은 가다(going up), 앉다(sitting down), 면도하다(shaving), 입다(dressing), 옷을 걸치다(put on the clothes), 먹다(eat), 씻다(washing one's hands), 이발하다(combing one's hair)등과 같은 재귀동사들이다. 이런 흡수 동사는 모두 사물을 몸이나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으로, 흡수 동사의 주어는 시사자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행위의 결과를 받는 사람인 수사자가 되기도 한다. 이때 ‘Ns가 N’에게 N을 주고, N’이 N을 VP의 방식으로 흡수한다.

박미정(2001:387)역시 현대 중국어에서 직접 사동을 표현하는 ‘給’字 구문은 쓰이는 동사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穿(衣服/鞋), 披(衣服), 戴(帽子), 系(腰帶), 打(領帶), 理(髮), 剪(頭), 洗(澡, 頭, 臉), 脫(衣服, 鞋) 등과 같은 것이다. 앞서 《醒世姻緣傳》의 ‘給’의 겹어 구조를 살펴보면, ‘給’字 사동문은 초기에 대부분 이런 동사로 구성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수혜의미와 직접 사동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현대 중국어의 예들은 바로 이런 ‘給’의 초기 사동문을 직접 계승한 것으로 추정된다.

《醒世姻緣傳》에서 ‘給’字 사동문은 대부분 구체적인 흡수 동사가 쓰였으나, 청대 중기작품인 《紅樓夢》이나 《兒女英雄傳》에 이르면 구체적인 사물처럼 주고받을 수 없는 동사, 예를 들면 ‘看’, ‘知道’, ‘見’, ‘聽’ 등

과 같은 동사가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石毓智(2004)는 현대중국어에서 ‘給’의 사동용법이 주로 Ns가 N'으로 하여금 V하도록 허용하거나 허락하는 간접 사동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11) 我就寫了幾首給他們看看，誰不是真心歎服。(《紅樓夢·第48回》)  
 (나는 시를 몇 수 써서 그들에게 보게 했다. 누가 진심으로 탄복하지 않겠는가?)
- (12) 千萬別給老太太、太太知道。(《紅樓夢·第52回》)<sup>6)</sup>  
 (절대로 할머니와 어머니가 알게 해서 안된다.)
- (13) 姑娘少坐，等我請個人來給你見見。(《兒女英雄傳·第7回》)  
 (아가씨는 잠시 앉아계세요. 제가 사람을 데려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 (14) 這是怎麼說? 你快說給我聽!(《兒女英雄傳·第12回》)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빨리 나에게 얘기하거라!)

### Ⅲ. ‘給’字 사동문의 의미

사동 행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동주와 피사동주, 그리고 사동사건과 피사동사건의 출현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런 요소들이 어떤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었는가를 통해 사동문의 의미 분석을 시도해볼 수 있다. 일찍이 Dixon(2000:62)은 사동문의 의미 분석을 위해 9가지 의미 변수를 설정하였다. 그 중에서 NP1(사동주)과 NP2(피사동주)의 성질과 그리고 동사(VP)의 성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6) 예문(12)와 같이 ‘給’뒤에 지각동사가 오는 경우, 피동용법으로 보는 경우가 있으나, 본고는 이를 여전히 사동용법으로 본다. 예문은 NP1과 NP3이 모두 출현하지 않아 NP1이 ‘知道’의 목적어인지, ‘給’의 행위자인지 불분명하며, 지각 동사 자체에 완료의 의미가 들어있어 피동의 의미와 부합되는 점이 있지만, 예문(13~14)이 피동용법이 아닌 것처럼 예문(12)역시 피동용법이 아니다.

(a) 동사와 관련된 것

- (1) 상태/행위(state/action): 사동문이 상태 동사와 결합되는가, 아니면 행위동사와 결합되는가?
- (2) 타동성(transitivity): 사동문이 자동사와 결합되는가, 아니면 타동사와 결합되는가?

(b) 피사동주(causee)와 관련된 것

- (1) 통제성(control): 피사동주가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가?
- (2) 의지성(volition): 피사동주가 의지를 가지고 피사동 행위를 하는가, 아니면 의지가 없이 행하는가?
- (3) 영향성(affectedness): 피사동 사건이 피사동주에게 부분적으로 영향을 주는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영향을 주는가?

(c) 사동주(causer)와 관련된 것

- (1) 직접성(directness): 사동주가 직접적인 행위를 하는가, 아니면 간접적인 행위를 하는가?
- (2) 의도성(intention): 사동주가 우연적으로 결과를 달성하는가,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결과를 달성하는가?
- (3) 자연성(naturalness): 자연적으로 발생하는가, 아니면 노력을 통해 결과를 이끌어내는가?
- (4) 참여성(involvement): 사동주가 피동사주와 함께 피사동 사건에 참여하는가, 참여하지 않는가?

Dixon(2000:62)에 따르면, 위의 의미변수 조건들은 서로 연관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a-2)의 타동성은 (a-1)의 행위동사와만 관련이 있다. 더불어 (b-1)의 통제성과 (b-2)의 의지성 역시 서로 연결이 되는 개념이다. (c-1)의 직접성과 (c-2)의 자연성 역시 연결되는 개념이다. 그리고 사동구조에서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성질은 서로 반비례 관계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 사동주의 직접성, 의도성, 참여성이 커질수록 피사동주의 통제성, 의지성 등이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피사동주의 행위성, 참여성이 약화되면 함께 출현하는 동사 역시 행위성이 약화된 상태 동사로 구성된다.

이처럼 동사술어의 의미 특성은 피사동주의 피사동 사건에 대한 통제성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給’字 사동문의 의미 특성을 밝히는 데 있어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의미 특성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에서 설명한 Dixon의 의미변수들은 동일 언어 속의 서로 다른 유형의 사동문의 사동성의 정도를 밝히는데 유용하다. 따라서 근대 중국어에서 전형적인 통사적 사동이자 간접 사동을 나타내는 ‘教/叫’字 구문과의 비교를 통해 ‘給’字 사동문의 의미 특성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 1. 사동주의 의미특성

‘給’字 사동문의 사동주(causer)는 피사동사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자이자, 행위자이다. 따라서 ‘給’字 사동문의 앞에는 대부분 동작의 행위방식이나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15) 你收拾酒飯，給兩個媒媽媽子吃。(《醒世姻緣傳·第75回》)  
(술과 밥을 준비하여 두 모자에게 먹게 하여라.)
- (16) 賈母忙命拿幾個小杌子來，給賴大母親等幾個高年有體面的媽媽坐了。  
(《紅樓夢·第7回》)  
(賈母는 급히 의자를 몇 개 가져와 賴大母 등 몇몇 나이 많고 체통있는 부인들이 앉게 했다.)
- (17) 兩日沒得水，得了半碗水給主子喝，他自己喝馬溺。(《紅樓夢·第7回》)  
(이틀 동안 물을 얻지 못해, 반 공기의 물을 얻어 주인이 먹게 하고, 자기는 말 오줌을 먹었다.)
- (18) 回手又把腕上的一副金鐲子褪下來，給他帶上，圈口大小恰好合式。(《兒女英雄傳·第12回》)  
(손을 뺀채 손목위의 금팔찌를 벗겨서 그에게 걸게 하니, 팔찌의 크기가 잘 맞다.)

위의 예들은 ‘給’字 사동문 앞에 모두 ‘V+N’구조가 나타나 NP2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방법을 나타낸다. 예(15~16)을 보면, ‘收拾酒飯’이나

‘拿幾個小杧子來’ 등 사동주의 동작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방식이 묘사되어 있다. 여기서 사동주는 의도성(intention)을 가지고 있으며,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피사동주에게 영향을 끼치므로, 조종 사동(manipulative causative)에 가깝다.<sup>7)</sup> 다만 여기서 사동주와 피사동주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사동주의 행위가 대부분 피사동주에게 어떤 도움을 주므로 shibatani(2002)가 제시한 간접 사동과 직접 사동의 연속체 안에서 직접 사동에 좀 더 가까운 협조 사동(assitive causative)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을 구분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은 사동사건과 피사동사건의 같은 시·공간에서의 발생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위 예문의 ‘給’字 사동문은 비록 시간상의 선후는 있으나, 두 사건이 매우 인접해 있다. 또한 사동주의 보조 행위가 없으면 피사동 사건은 결코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사건사이는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특징은 전형적인 간접 사동인 ‘教/叫’字 사동문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教/叫’字 사동문은 간접 사동을 표현하기 때문에, 사동주는 다만 지시, 명령, 권유 등 언어적인 수단을 통해서 사동행위에 참여하고, 피사동행위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지시 사동(directive causative)은 사동주의 사동 행위와 피사동 사건이 시공간적으로 분리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19) 臨別時母子痛哭，翹兒囑咐，叫他早早還鄉，不要流落別所，不要以他爲念。(《型世言·第7回》)

(헤어질 때 모자가 울면서 당부하길,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다른 곳으로 떠들지 말며, 나를 생각하지 말라하였다.)

(20) 晁住說道：“珍姨叫小人送這盒酒點心來與奶奶過節。”(《醒世姻緣傳·

7) Shibatani(1973, 1976)는 어휘적 사동은 조종 사동(manipulative causative)을 표현하고, 우회적 사동(periphrastic causative) 즉 통사적 사동은 지시 사동(directive causative)을 표현한다고 보았다.

第3回》)

(晁住가 말하길, 珍姨가 소인으로 이 술과 음식을 보내 어머니와 함께 명절을 보내게 했습니다.)

(21) 你那爹在家怎麼教你來? 打發咱們作煞事來? 只顧吃果子咧。(《紅樓夢·第6回》)

(네 아버지는 집에 있고 어찌 너를 보냈느냐?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려고 하더냐? 우리는 과일만 먹고 있다.)

(22) 我師父見了太太, 就住于老爺府內去了, 叫我在這裏等他呢。(《紅樓夢·第7回》)

(나의 스승님이 부인을 보고, 어르신 댁으로 갔습니다. 나는 여기서 스승님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위의 ‘敎/叫’字 사동문을 보면, 사동 사건과 피사동 사건이 반드시 동일 시각, 동일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예(22)에서 ‘師父’가 나에게 지시한 것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며, 지금 내가 그를 기다리는 피사동 사건은 현재의 사건이다. 또한 ‘敎/叫’字 사동문은 간접 사동을 나타내므로, 사동자의 물리적 접촉이나 행동 없이 피사동자의 행위를 유발한다. 게다가 간접 사동에서 피사동주가 유생물이면 사동주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스스로 걸러낼 여지가 있다.<sup>8)</sup>

한편, 사동문에서 사동주는 능동적 행동자이기도 하고 무의식적으로 의도치 않게 피사동 행위를 유발하기도 한다. ‘敎/叫’字 사동문은 사동주와 피사동주가 모두 유생물로 지시 사동을 표현하기도 하고, 사건이나 사물이 사동주가 되어 피사동 사건을 야기하기도 한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23) 聖賢千言萬語叫那讀書人樂道安貧。(《醒世姻緣傳·第33回》)

8) haiman(1983)은 사동형식의 차이와 개념 거리의 차이를 도상성(iconicity)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즉 개념적 거리가 멀수록 통사적 사동을 구성하고, 개념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어휘적 사동을 구성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중국어 ‘給’字 사동문과 ‘敎/叫’字 사동문은 모두 통사적 사동에 속하나, 개념적 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성현들의 많은 말씀이 독서인으로 하여금 안빈낙도하게 만들었다.)  
 (24) 這個女孩兒的這番識體，都叫人可感可疼。(《兒女英雄傳·第12回》)  
 (이 여자아이의 시체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25) 鳳姐兒笑道：‘這話沒的叫人惡心。’(《紅樓夢·第6回》)  
 (鳳姐兒가 웃으면서 말하길, 이 말이 사람으로 하여금 역겹게 만든다.)  
 (26) 這話說來真真叫人怒發沖冠，淚珠滿面!(《兒女英雄傳·第11回》)  
 (이 얘기는 정말로 사람을 화나게 만들고, 울게 만든다)

위의 예들은 유생물인 사람이 사동행위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피사동 사건을 야기한다. 예를 들어 예(24)에서는 ‘어린 여자아이의 시체’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고, 예(26)에서는 ‘이 말’이 사람을 화나게 만들고 울게 만들었다. 이는 모두 사동주인 사건이나 사물이 사람의 감정, 정서, 태도 등의 심리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처럼 생명이 없는 시체나 무생명사는 의도성과 직접성, 참여성을 가질 수 없지만, 피사동 사건을 일으키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일으키는 주체가 어떤 사건이나 사물인 경우 역시 전형적인 간접 사동을 나타낸다.<sup>9)</sup> 이런 감정의 발생을 나타내는 사동용법은 명·청대 ‘教/叫’字 사동문에만 나타나고, ‘給’字 사동문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給’字 사동문의 사동주는 거의 대부분 유생명사인 사람으로 구성되며, 사동주는 피사동 사건에 대해 도움의 의도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피사동 사건에 참여한다.

## 2. 피사동주의 의미특성

일반적으로 피사동주(causee)의 통제성은 피사동주가 유생물인지무생물인지와 관련된다. 그러나 ‘給’과 ‘教/叫’의 NP2는 모두 유생물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같은 유생물이라도 피사동 사건에 대한 피사동주의 통제성과

9) 朴鄉蘭(2011)은 이처럼 사동주가 사건이나 사물이 되어 피사동주의 심리변화를 일으키는 용법을 ‘感受致使’라고 명명하였다.

영향성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앞에서 보았듯 ‘給’字 사동문의 사동주는 대부분 피사동 사건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참여한다. 이와 반대로 피사동주는 피사동 사건에 대한 통제성이 약화되고 영향을 받는 정도는 증대된다. 따라서 ‘給’字 사동문의 피사동주는 피사동 사건에 대해 낮은 정도의 통제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 (27) 鴛鴦忙令老婆子帶了劉姥姥去洗了澡,自己挑了兩件隨常的衣服令給劉姥姥換上。(《紅樓夢·第39回》)  
 (원앙은 할멈으로써 하여금 유 노인을 씻기고, 자기는 두벌의 평상복을 꺼내 유노인에게 갈아입게 했다.)
- (28) 寶玉未必吃了,拿來給我孫子吃去罷。(《紅樓夢·第8回》)  
 (보옥은 먹을 필요가 없다, 가지고 가서 우리 손자에게 먹여라.)
- (29) 王夫人道:“留著給寶丫頭戴罷,又想著他們作什麼。”(《紅樓夢·第7回》)  
 (왕부인이 말하길, 남겨서 보옥에게 주어라.)
- (30) 你有甚麼好花兒呀、好吃的呀,就剪直的給我帶、給我吃,不爽快些兒嗎?(《兒女英雄傳·第29回》)  
 (네가 예쁜 것이나 맛있는 것이 있으면, 시원하게 내가 좀 갖게 하고, 먹게 하면 좋지 않느냐?)

위의 예문에서 ‘給’의 피사동주는 대부분 ‘給’앞의 사동주의 도움을 받아 후속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피사동 사건에 대한 통제성이 매우 낮다. 예(27~28)의 경우 ‘給’字 사동문의 피사동주는 ‘노인이나 손자’로 충당된다. 여기서 대부분의 피사동 사건은 사동주의 도움을 통해 일어난다. 그 결과 피사동주의 의지적 행위가 약하고, 인지적 결정이 끼어들지 않아, 사동주의 역할이 더 크고, 비사동주의 역할은 더 적다. 다시 말해 ‘給’字 사동문은 피사동주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사동주가 스스로 행위에 참여하며, 피사동주의 의도나 의지가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반면 앞의 예문(19~22)에서 보듯, ‘教/叫’字 사동문의 피사동주는 사동주가 시키는 동작을 수행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사동 사건은 사동주의

요구나 요청이 있더라도 피사동주의 협조 없이 일어날 수 없다. 이처럼 피사동주의 의지적 힘이 더 크게 작용할 때는 지시 사동이 우세하고, 피사동주의 의지적 행위능력이 약하거나 없을 때는 조종 사동이 강하다.

만약 피사동주가 통제성이 매우 약화되면 사동주의 행위는 피사동 사건으로 바로 투과된다. 이는 處置용법을 나타내는 중국어 ‘把’자문의 기능과 매우 유사하다.<sup>10)</sup> 이런 處置용법을 나타내는 ‘給’字 사동문은 《醒世姻緣傳》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兒女英雄傳》과 《紅樓夢》 등에서 발견된다.<sup>11)</sup>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31) 你帶了去, 給璉兒放在屋裏, 看你那沒臉的公公還要不要了。(《紅樓夢·第46回》)  
 (네가 데려 가서 璉兒를 방안에 두고, 뻔뻔한 시아버지가 원하는지 아닌지 보라!)
- (32) 接了人家兩三吊錢, 給人攔下, 人家依嗎?(《兒女英雄傳·第4回》)  
 (다른 사람에게 두세 개의 선을 빌려, 사람을 묶으면, 상대방이 따르겠느냐?)
- (33) 十三妹道: “那還倒他作甚麼呀? 給他放在盆架兒上罷。”(《兒女英雄傳·第9回》)  
 (十三妹가 말하길 세면대야를 버려서 뭐하려고? 대야를 세면대 받침에 올려놓아라.)
- (34) 老爺待要不接, 又怕給他掉在地下, 惹出事來, 心裏一陣忙亂, 就接過來

10) 한국어 통사적 사동의 경우 피사동주의 격표지를 통해 사동성을 추론해볼 수 있다. 즉 통사적 사동에서 피사동주의 격표시가 주격(~이)일때 피사동자의 행위성이 가장 높고, 다음이 여격(~에게), 그리고 대격(~을)의 순서이다.(김기혁: 2009)

11) 王健(2004)는 處置 의미를 가지는 ‘給’의 기원은 두 가지로 보았다. 하나는 개사 ‘爲, 替’의 뒤에 성분이 수혜자가 아니고, 뒤의 동사의 수사가 ‘給’ 뒤에 출현하게 되어 ‘給’의 기능이 발전하게 되어 변화하였다. 다른 하나는 사역을 나타내는 ‘給’ 뒷면의 NP가 뒷면의 동사의 시사자가 아닐 때, ‘給’이 處置 용법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給’ 뒤의 명사성 성분이 피사동 사건에 대한 통제성이 약화될 때 處置용법으로 변하게 된다. 이때 동사성 성분 역시 상태 동사로 변하게 된다.

了。(《兒女英雄傳·第38回》)

(老翁가 바로 잡지 않으려 했으나, 땅에 떨어져, 일이 생길까 싶어,  
마음이 어지러워 잡았다.)

‘處置’의미의 ‘給’字 사동문의 동사는 ‘放, 攔, 掉’와 같이 상태 동사로 구성되며, 결과보어 등을 가진다. 또한 예(33)처럼 피사동주가 무생명사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處置’용법의 ‘給’字 사동문의 피사동주는 사동주의 강제를 받아 사동의 영향만을 받을 뿐, 피사동 사건에 대한 통제성이 거의 없으며, 또한 피사동 사건에 참여할 수도 없다. 이처럼 ‘處置’의미의 ‘給’字 사동문은 직접 사동에 매우 가깝다.

‘教/叫’字 사동문 역시 상태 동사가 출현하기는 하나, 심리 감정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고, ‘處置’의미의 ‘給’字 사동문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35) 若道半個不字, 教你碎尸粉骨! (《西游記·第14回》)

(네가 만약 싫다고 하면, 너를 부숴버리겠다.)

(36) 我教那賊花子坐着死, 不敢睡着死。(《金瓶梅·第16回》)

(나는 그놈을 앉아서 죽이지, 결코 잠든 채로 죽이지 않겠다.)

(37) 你只別治殺了人, 犯在我手里, 我可叫你活不成! (《醒世姻緣傳·第67回》)

(너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마라, 만약 내손에 걸리면 너를 죽일꺼야.)

(38) 若老太太, 太太知道, 我先叫你們死。”(《紅樓夢·第68回》)

(만약에 할머니와 부인이 알게 되면, 나는 먼저 너희들을 죽일 것이다.)

예문(35~38)의 동사성 성분은 ‘碎尸粉骨’、‘坐着死’、‘睡着死’ 등과 같이 모두 비지속성 상태 동사이다. 하지만 ‘給’字 사동문과 달리 피사동사건의 발생을 일으키는 사동주의 구체적인 행위 방법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사동이라고 부르기가 애매하다. 여기서 사동주가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서 피사동주를 죽이는 것인지, 간접적인 행위를 통해서 피사동주

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지 알 수 없다. 더구나 處置의미의 ‘給’字 사동문에서 상태 동사가 나타날 경우 반드시 피사동 사건의 실현이 전제가 된다. 그러나 ‘敎/吽’字 사동문의 발화 환경을 살펴보면, 대부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가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 상대방에게 정신적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給’字 사동문의 피사동주는 사동주의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행위로 인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고, ‘敎/吽’字 사동문의 피사동주는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사건에 의해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된다.

#### IV. 결 론

본고는 ‘給’字 구문이 사동의미를 가지게 된 기원과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給’字 구문의 초기 통사적 환경을 살펴보면, ‘給’이 ‘주다’의미의 동사로 이중목적어 구문으로 쓰이고, 뒷면에 다시 동사가 출현한다. 그리고 이때 대부분 ‘吃, 囁, 穿’ 등과 같은 흡수 동사만이 출현한다. 따라서 초기 ‘給’字 사동문은 shibatani(2002)가 제시한 도식에서 직접 사동에 가까운 협조 사동(assitve causative)을 나타낸다. 이와 더불어 Dixon의 사동문의 9가지 의미 변수를 토대로 초기 ‘給’字 사동문의 사동주와 피사동주의 성질을 고찰하여 의미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간접 사동을 나타내는 ‘敎/吽’字 사동문과 달리 ‘給’字 사동문의 사동주는 대부분 유생물로 충당되고, 직접적이고 의도적으로 피사동 사건에 참여한다. 그와 반대로 피사동주는 의지성과 통제성이 매우 낮아 피사동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후대에는 피사동주의 통제성이 전무한 ‘處置’용법으로 쓰이는 ‘給’字 구문도 출현한다.

일반적으로 언어유형학에서는 어휘적 사동에 가까울수록 직접 사동(direct causative)을 표현하고, 통사적 사동에 가까울수록 간접 사동(indirect causative)을 표현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給’字 사동문은 비록 형태적으로 통사적 사동에 속하지만, 간접 사동을 나타내지 않고 직접 사동과 간접 사

동사이의 연속체(continium)에서 직접 사동과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물론 ‘給’의 연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參考文獻>

- 김기혁, <사동구성의 긴밀성>, 《문법 구성의 범주와 유형》(서울: 보고사), 2009.
- 박미정, <현대중국어 사동법의 의미에 대하여: ‘給’를 중심으로>, 《중국어 학의 주제탐구》(서울: 한국문화사), 2004.
- 이익섭·임홍빈, 《국어문법론》(서울: 학연사), 1983.
- 전기정, <현대중국어 ‘給’의 사동용법>, 《중국어문논총》, 2006.
- 範 曉, <論“致使”結構>, 《語法研究和探索(十)》(北京: 商務印書館), 2000.
- 郭銳·葉向陽, <致使表達的類型學和漢語的致使表達>, 第一屆肯特崗國際漢語語言學圓桌會議論文, 新加坡國立大學 2001.
- 洪波, 趙茗, <漢語給與動詞的使役化及使役動詞的被動介詞化>, 《語法化與語法研究二》(北京: 商務印書館), 2005.
- 蔣紹愚, <“給”字句, “叫”字句表被動的來源>, 《語言學論叢》第26集, 2002.
- 李 焯, <清中葉以來使役“給”的歷時考察與分析>《中山大學學報》第3期 2002.
- 李 焯, 《<醒世姻緣傳>及明清句法結構歷史演變的定量研究》(南昌: 百花洲文藝出版社), 2005.
- 劉永耕, <動詞“給”語法化過程的義素傳承及相關問題>, 《中國語文》第2期, 2005.
- 樸鄉蘭, 《近代漢語表使役與表被動的“教/叫”字句研究》, 北京大學博士論文, 2011.
- 石毓智, <兼表被動與處置的“給”的語法化>, 《世界漢語教學》第3期, 2004.
- 王 建, <給字句表處置的來源>, 《語文研究》第4期, 2004.
- 徐 丹, <北京話中的語法標記詞“給”>, 《方言》第1期, 1992.

- 張惠英, <說“給”和“乞”>, 《中國語文》第5期, 1989.
- 張麗麗, <漢語從使役到致使的演變>, 《台灣哲學學報》, 2006.
- 張 敏, <空間地圖與語義地圖上的「常」與「變」: 以漢語被動、使役、處置、工具、受益者等關係標記為例>(打印稿), 2008.
- 朱德熙, 與動詞“給”相關的句法問題, 《方言》第2期, 1979.
- 朱德熙, 包含動詞“給”的複雜句式, 《中國語文》第3期, 1983.
- Dixon R.M.W, *A typology of causatives: form, syntax and meaning Changing valency case studies in transitivity* (p30-79) Edit ed by r.m.w Dixon and Alexandra y.aikhenva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 Goldberg, Adele E,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s*.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中譯本《構式論元結構的構式語法研究》, 吳海波 譯(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7.
- Jae Jung, Song, *Linguistic typology: morphology and syntax*. Harlow: Longman. 《언어 유형론-형태론과 통사론》 김기혁 역 보고서 2009.
- Shibatani, Masayoshi., *Introduction: Some basic issues in the grammar of causation*. In Masayoshi Shibatani ed, *The Grammar of Causation and Interpersonal Manipulation*. Amsterdam: Benjamins. 2002.
- Shibatani, Masayoshi & Pardeshi, Prashant., *The causative continuum* In Masayoshi Shibatani ed. *The Grammar of Causation and Interpersonal Manipulation*. Amsterdam: Benjamins. 2002.

<中文提要>

語言類型學把使役結構分為三種—詞彙型，形態型和分析型。而且越接近詞彙型使役結構越表達直接使役，越接近分析型使役結構越表達間接使役。但‘給’字使役句雖然形式上構成分析型使役結構，但意味上卻直接使役。這跟它的來源有關。因此本文考察和分析‘給’字使役結構的來源和其意義。‘給’字使役句來自‘給’字雙賓語結構後面加上動詞謂語的結構。這樣受惠義和使役義交叉，因此最早‘給’字使役句大部分表達協助使役。另外，通過dixon的使役意味項考察早期‘給’字使役句的語義特征。結果，‘給’字使役句的主使者都是有生名詞，並且伴隨著目的性的動作行爲，都帶著目的性。受使者對被使事件有很少影響力和參與性。

주제어 : 給字使役句, 直接使役, 間接使役, 協助使役, 主使者, 受使者